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흥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1978년 시립관악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영국 에드워드 박사가 선정됐다. 이 기술을 이용해 현재까지 약 400만 명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한다. 시립관 악기는 아기를 간질하게 원하는 불임부부들에게 과학이 가져다준 커다란 희망임에 틀림없다.

톨릭 신자들도 자녀를 조절하기 위해 갈등을 느끼면서도 콘돔을 사용하거나 정관 수술을 받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종교와 과학은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 과거에 종교가 우위일 때는 신학자들이 과학자의 새로운 발견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갈릴레이의

여호와와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면 여호와와 지구를 멈추도록 하겠겠지만 태양이 돌았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찬송설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나 신도들이 성경을 근거로 지동설을 부정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다윈이 150년 전에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도 벌어졌다. 다윈은 생물체가 지구상에서 38억년 겪었던

이 강론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다. "진화론은 내가 아주 간단히 짚어 줄 수 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중간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없냐.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으면 원숭이는 싹 없어졌어야 하는데 원숭이가 왜 남아 있느냐."

그 설교를 듣는 신도들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듯한 명쾌한 강론에 감탄하는 듯했다. 그런데 생물학 시간에 제대로 들었던 중·고등학교도 진화론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안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지금의 원숭이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공통조상은 사라졌고 만 것일 뿐이다. 자신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목사는 강론할 때 진화론을 강론하려면 진화론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한다.

종교와 과학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비극이 발생한다. 수 천년 전에 쓰여진 기술들을 근거로 종교가 과학을 구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순과 폐단을 막기 위해 종교가 종교 본연의 영역인 신앙의 목표와 행복, 인간 영혼의 구원에 집중한다면, 과학과 상충하는 길은 될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국립암센터 의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거리

지동설에 대해 교황청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한 사건이다.

잘 알려진 대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추기경을 앞에 무릎 꿇은 뒤 성서에 손을 얹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태양을 돌고 있다는 잘못되고 이단적인 견해를 철회하고 주주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고서야 풀려났다.

지동설이 제기되었을 때 신학자들이 지동설이 틀렸다고 주장한 근거는 구약성서 예후수와 10장에 있었다. 성서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전투를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여호와께 부탁했고

진화의 과정과 종의 생성 및 소멸의 기본적인 원리를 밝혔다. 다윈은 자신의 명백한 관찰과 화석자료를 토대로 자연선택이 이 모든 생명체 변화의 기본원리를 주장하고, 대담하게도 모든 생명체가 한 가지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추론하였다.

그 뒤 우주와 지구의 생성 과정에 대한 발견과 화석 자료의 발견은 물론이고, DNA 발견 이후 현생 생명체들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생명과학자는 다윈이 150년 전에 내린 결론이 이토록 옳다는 것을 경이롭게 체험하고 있다.

우연히 케이블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

시설

영암 F1 성공 개최에 모든 역량 쏟아야

한국 최초의 F1(포틀러인) 무대가 될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마침내 FIA(국제자동차연맹)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F1 한국 그랑프리도 예정대로 오는 22~24일 개최된다.

영암 F1 경주장은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받게 돼 있는 최종 검수가 계속 늦어지면서 올해 대회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혹이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FIA가 12일 "100% 만족할 만큼 완벽한 경기장이었다"며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국내에서 그것도 전남지역에서 세계 3대 스포츠 경기의 하나로 꼽히는 '꿈의 레이스'가 펼쳐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관중 수 연간 380만 명, 전세계 TV 시청자 수 연간 23억 명으로 가장 선전 효과가 큰 F1 대회를 통해 전남의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관광 등 지역 연관산업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대

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을 때 기대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FIA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성공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영암 F1 경주장은 레이스를 위한 설비관련 부분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은 아직 미비한 점이 남아 있다.

또한, 대회가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료 판매가 40% 선에 그쳐 흥행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 에다 기업들의 마케팅과 후원이 필수지만 아직 타이틀 스폰서도 잡지 못해 적자대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영암 F1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첫 대회가 향후 7년간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와 KAVO는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 '교통 적자' 최소화 대책 시급하다

광주시가 최근 9년 동안 교통시설 적자 보전 등에 무려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은데다 올해는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허문수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광주 지하철 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의 적자

1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적자보전금 증가는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7.5%로 6대 광역시 중 꼴찌다. 마른 수건도 쥐어 짜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교통시설 적자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무임승차율이 31%로 타 도시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무임승승 손실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도록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등 운송 원가 절감 및 노선 운영의 효율화 등 대책을 세워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한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시에서 매입해 운영하거나 수입보장률을 낮추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을 보전금은 지하철 1호선에 380억 원, 시내버스에 356억 원,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223억 원 등 960억 원에 달해 2009년의 867억 원 보다

다. 따라서 교통시설 적자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무임승차율이 31%로 타 도시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무임승승 손실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도록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등 운송 원가 절감 및 노선 운영의 효율화 등 대책을 세워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한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시에서 매입해 운영하거나 수입보장률을 낮추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無等鼓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였다. 1992년 12월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의 엔지니어 밥 펠릭스가 상관인 리처드 자비스에게 보낸 첫문자이다. 초창기 문자메시지는 천막구멍이었던다.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복잡해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었고, 통신회사의 전송 시스템도 많이 부족했다. 걸릴까봐 문자가 허공 중에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리고 있어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빠르게 원하는 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그 역할도 안부 묻기를 넘어선지 오래다. 기상특보 같은 긴급정보를 알리는 국가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요, 선거운동이나 상품 광고에도 활용된다. 청각 장애우들의 가장 유용한 대화 매체이기도 하다.

불륜 문자



하지만, 문자메시지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25억명이 사용하는 대박 아이템이 됐다.

어려울 때는 직원 해고 통보용으로 쓰였다. 스톡킹이나 불륜 남자의 은밀한 대화 같은 부적절한 일에도 동원된다.

전망도 밝다. 가까운 미래에 전통적인 이메일은 사라지고, 문자메시지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업체 경영진들이 예상할 정도다. 컴퓨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어야 전송이 가능한 이메일과는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만으로도 의사전달이 쉽게 되는 간편한 덕분이다. 휴대전화가 매년 10억대 이상 팔

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간통했다는 물증이 없더라도, 이런 종류의 '불륜(不倫) 문자'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렇듯, 문자메시지도 유용성만큼이나 법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싶다. /김주석 여론매체부장 jkwins@

의료 칼럼

허정



우리나라는 최근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해 남자는 78세, 여자는 81세를 기록하면서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한 선심성 정책들이 무책임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데 있다. 모든 복지행정의 기본은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의료보장 제공에 있어야 하지만 능력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식생활 및 위생상태의 개선, 의학의 발달로 인한 당뇨·혈압·심혈관 질환의 관리·치료와 각종 암의 치료 발달과 사전 검진의 증가가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지난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공약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야 정치권이 대결한 사태가 있었다. 결국,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 측이 승리해 이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에 봉착, 큰

20~30년 전 만해도 많이 발생하던 대부분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치료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했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이 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최근 지난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공약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야 정치권이 대결한 사태가 있었다. 결국,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 측이 승리해 이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에 봉착, 큰

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

치료비의 부담도 큰 문제였다. 급격한 의료의 발달로 치료 성적이 증가되고, 예방적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헌신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료계의 현상을 볼 때 너무나 아쉬움과 걱정이 앞선다.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한 의료보장을 확대시키면서 의료보험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층의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1987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 및 의료보조 정책으로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큰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최고 의료수준을 만들어 낸 의료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중증환자의 입원치료의 부담에 있어서도 300만원 이상은 본인부담 면책사항으로 줬으로써, 최근 발표된 예를 보면 허귀환자의 치료비가 20여원을 넘는 등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의료급이 환자에 있어서 본인부담을 최소화시키므로써 일부 환자들이 의료소외에 가까운 진료를 받아 많은 약품의 낭비 및 폐기가 보험재정의 고갈을 부채질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국가의 모든 정책은 복지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물론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최소한의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증가 등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의료계 발전은 물론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보정책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에덴병원장>

최근에 국가예산의 약 30%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채워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도 급격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예산이 바닥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와 유권자들의 인식

중요 노인들이 사이에 9988234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만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 뜻대로 될 수 있겠는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철호



가을이 되면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공연이나 행사,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우리 지역만 해도 꿈과 희망이 넘쳤던 70년과 80년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제7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발해 배부했다. 이 매뉴얼은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광진흥법상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단위의 축제, 이벤트 성 공연이나 행사 등 문화예술과 체육 행사 활동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막 당일 유명 연예인 축하 공연 때 2만여 명의 관중이 몰려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행사장 안전관리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주최측에서 아무리 모든 면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축제가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고는

행사장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통제가 어렵고 또, 각종 시설물의 관리 소홀을 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안전한 공연문화를 위한 제언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옥의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타박상 등 가벼운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암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흥분상태에서 과호흡이나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폭죽이나 불꽃놀이로 인한 화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이런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해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는 지역축제 과정에서 진행된 콘서트장에 사람이 몰려 관중 11명이 압사하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6년 3월에는 서울의 한 놀이동산에서 선착순 무료개방 소식에 한꺼번에 몰린 관람객들로 3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관람할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 만큼 무엇보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을 삼가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폭죽이나 폭음탄 등은 집합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연, 행사 안전의 일차적 책임자는 행사 주최자이다. 따라서 주최자들이 관람객을 많이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광주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축제들을 성공리에 치러왔다. 올해만 해도 4월에 광역스포츠, 8월에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무사히 마쳤고, 지난 9월부터 2010 광주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같은 반복적인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 6월에 공연, 행사장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개

또 세계인이 주목하는 광주 김치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북구 중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 기간에 한정된 양의 배추를 잔 값에 공급할 예정이라 하니 또 한 번 애중마들의 줄을 가려져도 된다.

성숙하고 안전한 공연문화를 기대한다. <광주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고령화 사회, 노인 건강권 위한 예산 지원 더 해야

요즘 노인들 사이에 9988234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만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 뜻대로 될 수 있겠는가?

도 많은 부담을 격정하게 된다. 국민의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적은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료사업화로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통해 진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풍, 암, 치매 등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본다. 그러나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고령인구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광주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